

# 유럽의 현재와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기억의 장소' 조명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 (museum)은 고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무세이온'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곳은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그리스 여신들인 무사이온이 신전 기능과 더불어 학술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더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9명의 여신 무사이온은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믈네모시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각각 9개 분야를 관장했다. 서사시, 역사, 찬가, 음악, 춤, 서정시, 비극, 희극, 천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의 현재와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기억의 장소들을 조명한 책이 나왔다. 통합유럽연구회가 펴낸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해 보는 유럽의 역사다. 지금까지 연구회는 '인물로 보는 유럽 통합사', '유럽을 만든 대학들' 등을 발간했다.

유럽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야기의 보고'라는 수사를 넘어 담론과 사유의 공간, 문화정체성을 지지하고 견인한다. 언급한 대로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은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다. 이후 헬레니즘 시대의 학문과 예술의 꽃을 피운 견인자 역할을 했다.

책은 갈등과 협력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29곳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조명한다. 고대에서부터 중세와 근대, 현대를 망라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박물관까지 아우른다.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는 흥미로운 전시실이 있다. 바로 영국에 약탈당한 유물의 복제본이 있는 4층 파르테논 전시실이 그것. 이는 '파르테논 조각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 어디인지'를



박성천 미술관에서 보는 유럽사

통합유럽연구회 지음

책에게 물음으로써 문화재 반환에 대한 그리스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베를린 눈물이 공전'은 독일 분단의 일상을 재현하는 곳이다. 현대사 박물관으로서 이곳의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과 기억을 공유하는 데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1년 눈물의 공전 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동독에서 살았던 당부를 회상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자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와 매년 이곳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해마다 할머니는 늙어가고, 우리는 다음 해에 할머니를 또 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메르켈의 말은 독일과 같은 분단을 겪은 우리에게 남다른 울림으로 다가온다. 아픈 기억을 '눈물의 공전'이라고 명한 역설과 은유는 그들이 얼마나 아픈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유럽 대표 루브르·프라도에서 디지털 박물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까지 갈등과 협력 통해 새 역사 만들어가는 박물관·미술관 29곳 이야기  
약탈당한 유물 복제본 전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문화재 반환 각인



유럽에서 박물관은 '이야기의 보고'를 넘어 다양한 담론과 사유, 문화정체성을 지닌 공간으로 인식된다. 사진은 대영 박물관. <광주일보 자료>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박물관 기원'에서는 최초의 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본다.

2부 '도시/로컬'에서는 파리의 역사와 파리지역의 이야기인 '파리카르나발레박물관', 군주의 미술관에서 시민의 미술관이 된 '피렌체 우피치박물관'을 다룬다.

관'을 다룬다.

3부와 4부는 '국가'와 '유럽/유럽통합'을 매개로 한 박물관을 들여다본다. 전자에는 루브르의 잃어버린 시간이 담긴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과거 영화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런던 대영박물관' 등이 소개되는데, 후자에는 고대와 중세를 잇는 '파리 클뤼니박물관'과 광기의 상흔, 아만의 기억이 투영된 '오시비엔짐 아우슈비츠박물관' 등이 담겨 있다.

5부는 미래의 박물관을 상정하는 글이 주를 이룬다. 박물관의 플랫폼에서 박물관들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로, 한마디로 디지털 도서관을 함의한다. 문화유산과 관리하는 기관이 원본의 디지털을 제공해, 가치의 재해석 등 사회적 담론을 확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과거의 찬란한 유산과 접촉했던 순간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싹트는 희망의 기운……. 박물관은 이 모든 다채로운 순간들을 저마다의 이야기로 엮어 담아내고 방문객과 소통한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소통을 통해 방문객은 때로는 압도되고, 때로는 숙연해지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가지기도 한다."

<책과함께> 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 김사과 지음 'N.E.W'

"날것의 문장들", "세계의 파괴", "지독한 폭력" 등……. 한때 김사과의 소설을 수식하던 말들이다. 문학평론가 김영찬은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소설"이라고 평한 적 있듯이 김사과의 소설은 강렬했다.

지난 2013년 '천국에서' 이후 5년 만에 발표한 장편 'N.E.W'는 통쾌한 비극의 세계를 그린다.

모두 3부로 나뉜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 오손그룹 후계자인 정지용은 아버지 정대철 회장의 카리스마에 놀려 달멸어진 자식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의문스러운 정지용과 학벌, 미모, 집안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최영주는 순조롭게 결혼한다.

신혼집은 서울 근교 스마트아파트 '메종드레브'다. 이곳은 다양한 계층을 섞어 완벽한 통제 속에서 균형을 달성한 인간을 키워내려는 정회장의 욕망이 투영된 실험장이다.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정지용은 어느 날 5평 원룸에 사는 인터넷 BJ 이하나를 만나게 된다.

정지용은 매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고, 이하나의 현실은 완전히 바뀐다.

소설은 도시라는 '최신식 황무지'에서 기묘한 방식으로 동거하는 '완벽한 유령'들을 그려낸다. 작가는 세계의 결함을 자신만의 특유의 서사로 드러낸다.

작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걸맞은 환상이요"라고 말한다.

<문학과지성사> 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랑가 요게슈바어 지음, 이미옥 옮김 '과학으로 쓰는 긍정의 미래'

누군가는 미래로부터 많은 기회를 얻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예측한다. 과연 미래의 세계가 지금보다 더 나을지 묻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응답자 중 4%만이 미래에 자신의 삶이 더 향상될 거라 믿었다고 한다.

변화하는 세계에 던지는, 새로운 시각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사소한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다'를 펴냈던 언론인 출신 랑가 요게슈바어의 '과학으로 쓰는 긍정의 미래'는 과도기 상태에 놓인 오늘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저자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변혁, 미디어와 교육에 미치는 인터넷 영향, 에너지 전환기의 효과, 유전자 기술에서 진행되는 변화, 자립적인 기계와 지능적인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양상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스웨덴의 인공지능 연구소, 한국의 복제 연구소, 하노버의 자율 주행 자동차의 모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혁신은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생겨난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아마존에서 왓츠앱까지, 에어비앤비에서 우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저자는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즉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 많은 손실을 의미하지만 새로운 전망을 기회로 보면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코리브르> 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티부이 지음, 정재윤 옮김 '우리가 했던 최선의 선택'

베트남 출신 작가 티부이는 남베트남 패망 이후 1978년 보트피플이 돼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녀가 펴낸 그래픽 노블 '우리가 했던 최선의 선택'은 '그림으로 그린 베트남 회고록'이다.

1등만을 강요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어머니, 무능했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저자는 부모님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슬픈 역사를 마주한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프랑스 침략, 식민 지배, 미군의 개입, 분단과 전쟁을 거쳐오면서 부모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삼화가로도 꾸준히 활동한 그녀는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칼 데쿿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그래픽 노블 데뷔작인 이번 책 역시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 있는 그림체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책의 처음은 2005년 주인공의 분만 현장이다. 그녀는 오랜 시간 진통을 하며 부모가 된다는 것, 자신을 낳았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보게 되고 어렵사리 아들을 낳는다. 이어 작품은 어머니가 티부이를 낳은 1975년 사이공 어느 병원에서 이어진다.

이후 작품은 베트남에서 부모의 삶을 쫓는다. 화려한 연회를 열 정도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던 그녀 부모의 삶은 결혼 후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남베트남이 패망하며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2017 빌게이츠 선정 올해의 추천도서 등에 언급되면서 화제가 됐다.

<내 인생의 책> 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 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